

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도 비만군은 식행동에서 '단음식을 먹지않는다'에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p < 0.05$)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활동종류와 시간에서도 각군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비만아동의 높은 영양소 섭취량은 강한 조절장애상태나 강한 공복감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만아동의 심리적인면을 연계한 식행동 연구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P1-11】

미국거주 한인 아동의 비만 발생에 관한 연구 - 한국거주아동과의 비교를 통한 -

박계월 · 심영자¹⁾ · 송주미¹⁾ · 김은경¹⁾

강릉대학교 식품과학과, 뉴욕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본 연구는 한국(서울)에 살고 있는 331명의 어린이와 미국(뉴저지)으로 이주한 262명의 한국어린이, 총 59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비만 발생에 있어서 환경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신장, 체중,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 및 부모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식생활태도와 식습관, 식품섭취 빈도를 조사하였다. 비만 발생율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미국 거주 아동이 12.6%로 한국 거주 아동의 8.0%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여아의 경우도 미국 거주 아동의 비만 발생율이 8.2%로 한국 거주 아동의 5.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아의 신체계측 결과를 한국 거주 아동,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하인 아동, 거주기간이 3년이상인 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출생시 체중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의 각종 비만도 지표(%IBW, BMI, RI)는 한국 거주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의 신체계측치와 아동의 신체계측치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신체계측치와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식품(김치, 생선구이·조림)의 섭취 빈도 점수는 한국 거주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미국형 식품(빵, 콜라·사이다, 치즈, 버터·마가린,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파스타, 베이컨)의 섭취 빈도 점수는 미국 거주 아동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미국 거주 아동이 한국 거주 아동보다 비만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식생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미국거주 한인아동에 있어서, 단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더 즐겨먹으며, 배부를 때까지, 또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는 식생활 태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기름진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식하는 아동, 식사속도가 빠른 아동,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 아동의 비율 역시 한국 거주 아동보다 미국 거주 한인 아동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 생활 패턴에서도 차이를 보여 미국 거주 아동은 한국 거주 아동보다 수면 시간이 더 길었고, 학교 등교시 도보이용 비율은 낮았으며, 주된 취미가 운동인 아동의 비율과 운동 빈도도 낮아서, 비만 발생 위험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아동'에 대한 '미국 거주 아동'이 가지는 비만 발생 가능성의 상대위험비가 1.687 (0.930~3.059)로 관련성을 보였고, 미국 거주 아동의 거주기간에 대해 '3년 이하'에 대한 '3년 이상'의 비만 발생 상대위험비가 1.247 (0.547~2.839)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비만은 식사속도, 과식 등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고, 특히 미국 거주 아동의 경우 과식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한다'의 비만 발생 상대위험비가 3.880 (1.689~8.915)로 관련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만과 관련된 요인으로 아동의 허리 및 엉덩이둘레, 부모의 비만도가 양의 의미있는 설명력을 나타냈고, 미국 거주 아동에서는 식생활태도와 TV 및 Video 시청이 각각 $r = 0.060$ 및 $r = 0.023$ 으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미국 거주 아동의 경우, 서구화된 식습관과 식생활태도에 더 많이 노출됨으로써 비만 발생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환경적인 요인의 통제 및 관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한 소아비만의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P1-12】

영양조사 참여 자원자와 임의 선정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식습관의 차이

김완수 · 김미정¹⁾ · 현태선¹⁾

호남대학교 조리과학과,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조사연구에서 조사대상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조사결과를 그 모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위해